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창건 일흔둘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공으로 빛내이기 위해 산악같이 펼쳐나선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이 련이어 창조되고 로동당시대의

기법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는 속에 정성제약종합공장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정말 만족하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 찾아가는 곳곳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는것을 볼 때마다 혁명하는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된다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정성제약종합공장에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하날같은 은정을 배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성제약 종합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감으로써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정성제약종합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과 크나큰 사랑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별가리아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를 별가리아 자라바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9월 7일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발행식에는 별가리아 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자라바출판사의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이 나라 주제 우리 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별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 이따나스 이와노브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에는 자라나는 세 세대

##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이여! 세계적관도에서 공화국창건 67돐을 성대히 경축

수만많은 민족사에 증지부를 찍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수십성상, 그 기나긴 행로우에 세기적인 기적과 거창한 변혁만을 아로새겨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7돐을 세계 진보적 인민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존엄높은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전후로 하여 각국 언론들의 선전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해졌다.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멸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비롯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영구선군정치연구회, 스위스조선위원회, 도이쉴란트민주연단,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위원회,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까지지가 인더네트홈페이지에 올렸다.

라오아신문 《폼싸올스까야 뿌라우디》, 라오아신문 《빠싸손》,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트》, 세네갈신문 《라 보플레르》, 폴스까인터네트홈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여러 나라의 신문, 인터넷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사진문헌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 문헌들을 모시고 투썬하였다.

캄보디아의 암싸라 TV 및 라지오방 송, 수리아중앙TV방송, 만마TV방송, 방글라데시 에이리엔TV방송은 조선인민군의 불멸의 위력과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조선의 명승지들을 소개하는 편지물들,

우리 나라 영화들을 방영하면서 특 별보도를 하였다.

언론들은 사회주의조선의 필승불패성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불멸의 지도사상을 가지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를 생활로, 생명으로 간주하고있는데 있다고 칭하고 대를 이어 길이 빛날 아버지수령님의 건국업적을 찬양하였다.

한편 방글라데시인민혁명 위원장, 만마혁명면대성발원당 양근지역위원회 비서, 수리아 디마스중합대학 정치학부 강사, 조선인민과의 반대 성 및 조선통일지지 아랍위원회 위원장은 담화 또는 글을, 스위스조선 위원회와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베루니독립 운동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배후위원회, 영구선군정치연구회와 영구주제사상연구소, 영구조선 친선협회는 공동성명을, 조선과의 친선협회 제스프지부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담화와 글, 성명들은 9월 9일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여 조선인민에게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선물을 마련해주신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이 빈민년에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하늘이 낸 혜명의 은인이시며 민족의 영웅, 자애로운 인민의 어머니이시라고 칭송하고 보 다 휘황찬란한 사회주의조선의 매일 을 확인하였다.

9.9절을 축하하여 꾸마국가리사 회 위원장, 캄보자국왕, 알제리대통령과 여러 나라의 정부, 정당, 단체, 기관들,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세 우리 나라 대표부들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오거나 대표부들을 축하방문하였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 단결기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거행되고 로씨야 마젤 고리키명칭 연 해변강국립도서관에서 우리 나라 도 서기중식이 마련된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이 세계 이르는 곳곳에서 널리 진행되였다.

행사장에는 공화국의 창건과 강 화발전을 위하여 한생토록 헌신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수령님들의 위업을 이어 강성조선의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헌신과 애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주제사상연구 로모니아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조선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혁명한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일성각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각하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있다.

조선식사회주의건설과 강화발전 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은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할 것이다.

세네갈사회당 비서는 조선이 위대한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의 명도를 받기때문이며 조선이 강대한것은

수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일심단결 되어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앙골라 말란게주, 룬다 노르메주 보건국장들은 통방의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나가 는 조선의 현실은 자주를 지향하는 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인 화익운동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도 조선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는 한 제국주의 자들은 조선의 사회주의를 좌절시키지 못할것이다.

캄보자 왕국 담당 부수상은 김정은원수각하의 명도따라 조선인민은 경제건설에서 날에날마다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 창건 70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언급하였다.

제반 사실은 걸출한 수령의 명도 밑에 이뤄진 약소국으로부터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힘차게 비약 하여온 우리 공화국의 67년사가 곧 자랑찬 승리와 위대한 번혁의 역사임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은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더욱더 무궁번영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대안천선유리공장과 강남군 마정리, 문암리, 풍교리, 평양메기공장에 모시였다.

대안천선유리공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모시였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애민적인 길을 걸음없이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동강기슭에 현대적인 유리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완공된 대안천선유리공장을 찾으시여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풍년든 농장별을 찾으시여 환하게 웃으시는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만풍년》이 강남군 마정리와 문암리, 풍교리에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60(1971)년 3월 마정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토지정리를 하여 농업생산을 높이고 양어와 축산을 잘하기 위한 문제 등 농장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문암리에도 포전길을 걷고있으며 논과 밭에 거름을 많이 내고 알곡 생산을 높이며 마을을 잘 꾸리고 앞날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다.

주체 60(1971)년 3월 풍교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알곡과 배두산질세워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겠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모시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따라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떨쳐가려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들이 해당 단 위들에서 진행되였다.

본사기자